



# 인터넷 채팅 성범죄 온상 전략

채팅으로 유인 성폭행·성매매 등 범죄 잇따라  
미성년자 성매매 95.4% 인터넷 통해 이뤄져  
가입 제한 형식적·접근 용이...대책 마련 시급

인터넷 채팅 사이트가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은밀하고 즉흥적인 만남이 가능하면서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까지 성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인 여성을 협박해 모델로 끌고 성폭행한 강모(27)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전날 새벽 3시께 광주 동구의 한 모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접속해 1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염모(18·여)양과 유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한 후 10대 여성을 만나 유사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모(28)씨는 6일 새벽 3시 30분께 동구의 한 모델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10만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한 뒤 염모(18·여)양과 유사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쉽게 성폭행·원조교제 등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70% 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돼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3%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10년

도 청소년 디지털 이용문화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채팅 이용 청소년 10명 중 3~4명은 성관련 유인 메시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B 사이트와 J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의 거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등 온상이 되고 있으나 가입제한이 형식적이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가입도 자유로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터넷 관련 청소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쉽게 원조교제 등의 성범죄에 노출되고 범죄행위를 보편화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각종 인터넷 유희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경은 기자 white@kjdaily.com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설명회  
일명 '도가니 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개정안 설명회가 열려 패  
넬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재민 기자 kki@kjdaily.com

## '단돈 7만원 흠쳐서'

소액절도 40대 전과자 구속

단돈 7만6천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다. 소액 절도지만,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구속 수사한다는 경찰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해남경찰서는 6일 농기계 대리점에 침입, 7만 6천원을 훔친 임모(4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일 새벽 해남읍 모 농기계 대리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소형 금고에서 돈을 훔친 혐의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임씨는 환자복을 입고 범행을 저지르다 도난경보시스템 작동으로 출동한 용역경비업체와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임씨는 15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박정길기자

## 조선소 작업중 30대 인부 숨져

6일 오전 8시 40분께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건일기업 강모(30)씨가 공장의 큰 문(빅 도어)을 열던 중 한쪽 문이 떨어지면서 밑에 깔렸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강씨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암=이봉영기자

# 신학기 교복값에... 학부모 '한숨'

1벌에 30만원대...여벌·체육복 합치면 40만원 훌쩍  
공동 구매 현실적 한계 많고 A/S·원단 떨어져 기피

"입학시즌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얇은 지갑 볼 때면 한숨만 나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광주지역 학부모들이 비싼 교복값에 한숨만 쉬고 있다.

6일 광주시 유명 교복 브랜드 업체에 따르면 물가·원단가격 상승 등에 중고교생들의 교복가격이 지난해 신학기 때보다 10~15% 인상됐다.

대부분 남학생 동절기 교복(재킷, 셔츠, 바지, 조끼) 가격은 29만

~31만원이고 여학생의 동절기 교복(재킷, 블라우스, 치마, 조끼, 가디건) 가격은 34만~3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4만원 정도 올랐다.

더욱이 남·녀학생 교복 치마·바지, 셔츠 등은 여벌로 각각 1벌씩 더 구입해야 하고 여기에 별도 체육복까지 더하면 40만~50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남구 D 여고에 자녀가 입학하는 학부모 김모(40·여)씨는 "불과 2

년전 이들의 고등학교 교복을 사줄 때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다"면서 "공동구매라는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처음에만 저렴해서 좋을 뿐 A/S나 원단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동구매로 교복을 사면 브랜드 교복 비용보다 최대 45%까지 저렴하지만 원단이나 A/S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공동구매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소위원회 구성하고 공동구매 업체와 협의를 거쳐 상호의 사타진이 성립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남구의 한 여고 관계자는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철저히 학부모 소위원회와 업체간의 정교한 역할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 행정적인 일만 하고 교복 선택과 구매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복 가격이 워낙 비싸고 공동구매 성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0~30%저렴한 브랜드 이월 상품을 찾거나 혈안이 돼 있다.

서구 쌍촌동 한 브랜드 교복업체 직원은 "정장이나 다른 옷은 해가 바뀌면 스타일·유행이 변하지만 교복은 그렇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면서 "하지만 수요에 비해 물량이 워낙 적어 금세 팔리고 만다"고 말했다.

/곽성진 기자 gugu777@kjdaily.com

# '일진경보 효과 있나?' 학교 현장 반응 '싸늘'

"체육시간 늘린다고 학교폭력 줄어드나"  
"학생 1대1 상담하려면 행정업무 줄여야"

"일진들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쓸 겁니다"

정부가 6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 현장에서 직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경찰청과 함께 일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도가 심한 학교에 '일진경보'를 발령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 비아냥섞인 댓글이 이어졌다.

한 고교생은 "일진이 파들리는 아이는 다른 학생들도 다 같이 파들리는데 일진 신고가 들어가서 일진 경보가 가동될 수 있겠냐"며 "일진 경보가 가동되면 학교에 사이렌이라도 울리느냐"고 되물었다.

한 중 3학생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욕구를 발산할 수 있

도록 체육수업을 늘린다'는 대책에 대해 "애들 때리는 게 총동아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들기 때문"이라며 "체육을 많이 한다고 폭력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의 반응도 미온적이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들을 1대 1로 상담하고 싶어도 당장 눈앞에 쌓인 행정업무 때문에 불가능하다.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데 교과부에서 하라고 하니 대충 하게 될 것"이라며 "교과부 장관이 현장을 알려면 간단히 대신 한 학기 이상 생활지도 교사로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일진경보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구체적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 등이 쏟아지자 설명자료를 내고 "경보 작동 이후에는 학교폭력 조사담당 직원, 위센터 전문가 등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해 학생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정기자 jk@kjdaily.com

## 후배 협박 상습 갈취 중학생 2명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후배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은 중학생 박모(16)군 등 2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군 등은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후배나 동급

생을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은 학기 중간에 전학을 간 이후에도 김 군과 함께 예전 학교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주형택기자

## 검찰사이트 위조 금융사기 3명 구속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6일 검찰청 사이트를 위조해 보이싱 피싱(전화금융 사기)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한 모(2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

1월30일 합평에 사는 이모(50)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인데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가 도용됐으니 신고하라'며 위조한 검찰청 사이트를 가르쳐 준 뒤 인터넷 뱅킹으로 이씨의 계좌에서 7천800만원(28)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백은성기자 pes@kjdaily.com

묘지이장 (납골묘) 시공전문회사  
**(유)코뚜레기업**

**묘이장. 납골묘**  
이제 전문회사에 맡기십시오!  
(2011년~2012년 분묘개장 접수합니다.)

(유)코뚜레기업은 공사부지, 유연, 무연, 분묘개장, 이장, 화장, 납골안치등 정부 관급공사 적격심사 자격업체입니다.

**무연 유연 분묘개장 허가대행**

- ▶ 묘지이장(전국) 묘지조성(전국)
- ▶ 묘지석물공사(전국)
- ▶ 가족묘지, 공원묘지
- ▶ 납골묘 시공

**(유)코뚜레**

묘지에 관한 모든것! 상담문의: (062)222-444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낮은 땅에서 가정폭력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오전9시~오후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여성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

**사무실 임대**  
금남로4가. 구.삼성생명빌딩

지하1층 ~ 지상6층  
층별 94평(분할가능)

병원, 학원 등  
기타  
다양한 업종  
가능

※대형주차장완비  
※금남지하상가점포 임대(70평)

문의 **062)953-5511** 구.삼성생명B/D  
**010-3617-8810** 구.중앙교회 건너편  
1층 대형주차장 임대